

### 덕숭산에 핀 연꽃 향기 세계 덮네

‘생사의 바다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물거품으로 살았었고, 흩날려 깨닫고 보니 내 몸은 불속의 연꽃인 것!’

근대 선종의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경허(鏡虛, 1849~1912) 스님의 선사다. 미혹의 세계에서 우리는 망망한 바다에 떠도는 작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지만 깨닫고 보면 불속에서도 타지 않는 연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법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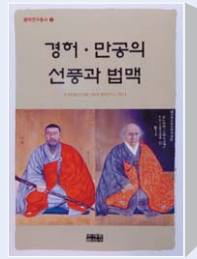
한말의 격동기에서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일신하고 간화선 중흥의 초석을 다진 경허 스님과 그의 제자 만공(滿空, 1871~1946) 스님. 경허 스님은 수선결사(修禪結社)를 조직, 영호남 일대에 간화선풍을 크게 드날렸으며, 만공 스님은 스승의 법을 이어 선학원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 선종 발전의 토대를 일구었다. 그러나 두 선사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해 그 평가와 위상이 올바르게 확립되었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

이런 가운데 경허-만공 선사의 생애와 선사상을 조명한 책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가 펴낸 <경허 만공의 선종과 법맥>(조계종출판사)은 두 선사의 문헌들이 정진하는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응산)와 불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두 선사의 사상과 구도열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이 시대의 귀감으로 삼기위해 기획했다. 지난 해 4월 25일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해 반듯한 단행본으로 만들었다.

덕숭총림 수좌 설정 스님은 이 책에서 “경허 선사야말로 사비, 염정(染淨: 더러움과 깨끗함), 생사, 승속이 다 끊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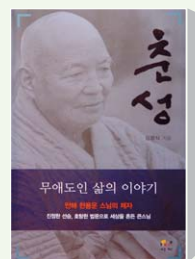
#### 경허 만공의 선종과 법맥

불학연구소 편 | 조계종출판사 1만2000원



절대 무위진인(無位眞人)으로서 ‘수처작주 임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머무는 곳마다 주인으로 서면 거기가 바로 깨달음의 세상이다)’의 그 당체였다”면서 “두 분 고승의 진면목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이뤄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 무애도인의 대기대응을 만나다

#### 춘성

김광식 지음 | 새싹 펴냄 | 1만5000원

어느 시대에도 전설적인 인물이 있다. 세상이 정해 놓은 길을 가지 않음으로 하여 사람들로부터 집중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 인물들은 돌 중 하나다. 알맹이가 있거나 없거나. 근현대 스님 가운데 가장 전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가진 스님이 춘성 스님(1891~1977)이다. 물론 알맹이는 꼭 찔다. 저자 거리에서는 육두문자로 우둔한 증상을 교화하고 선방에서 치열한 정진력으로 참수행자의 면모를 보여 주었던 스님이다.



그러나 ‘무애도인’ 춘성 스님과 관련한 다양한 일화만 입에서 입으로 떠돌았지 일대기가 일목요연하게 정돈된 책은 없었다. 근현대불교사 연구자 김광식씨가 “지하의 우물 속에 묻혀 있었던 춘성을 지상 밖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첫 번째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며 춘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묶었다. 춘성 스님과 가까이 지냈던 출 재가자들의 회고담과 향간에 떠도는 기담들까지 샅샅이 모았다.

춘성 스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육두문자와 기행으로 사람을 매우 놀라게 했다. 기독교 선교사가 버스에서 지나치게 요란하게 선교를 하자 “뭐? 죽었다 살아났다고? 나는 여태까지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것은 내 X밖에 본 적이 없다”며 호통 치던 스님이었다. 통행금지 시간이 되어 야간 순찰을 도는 순경이 “누구나?”고 묻자 “중대장이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한 스님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운은 스님 앞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 춘성 스님은 은사의 독립운동을 도왔고 경전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선방에서는 지독한 정진으로 유명했다. 도봉산 망월사에서 오래 오래 머물며 선방을 복원했다. 소탈한 성품과 괄괄한 대기대응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한 생을 바람처럼 살았던 스님이 춘성 스님이다.

책은 춘성 스님의 일대기와 내가 만난 춘성 스님, 일화로 만나는 춘성 등의 순서로 묶여졌다. 임연태 기자

### 책으로 다시 오신 큰스님...사자후 ‘쩌렁쩌렁’

### 성철 스님이 제시하는 ‘선사들의 암호’ 풀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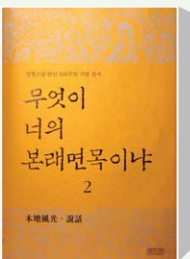
‘해인총림 수십 년 사자후는 극심난해(極深難解)한 공안(公案: 화두)이지만 정안종사(正眼宗師)의 무절한 법문을 인증(引證)하여 들려주시고자 함이니, 이는 고불고조(古佛古祖)의 참 선지(禪旨)를 보이고자 하는 노심초사의 결과임을 어찌 모르겠나이까? 그래도 노사계 또 묻습니다. 어떤 것이 본지풍광입니까?’

조계종 중흥 법정 스님이 최근 나온 성철(性澈, 1912~1993) 스님의 선어록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나 2>(장경각)에 쓴 현사(獻辭) 가운데 한 부분이다. 여기서 법정 스님이 스승 성철 스님에게 던진 ‘어떤 것이 본지풍광입니까?’ 하는 질문은 또 하나의 화두가 되어 우리 폐부(肺腑)를 찌른다. 본지풍광(本地風光)이란 바로, 모든 구도자들이 목마르게 찾는 ‘알 수 없는 그것’, ‘때묻지 않은 심성’이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 본래의 얼굴(本來面目)’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나 2>는 이러한 본지풍광, 즉 본래면목을 찾는 구도자들에게 던지는 우리 시대의 공안집이다. 성철 스님의 법문집 <본지풍광>이 27년 만에 해설판으로 새롭게 출간된 것이다. 이 책은 한문투의 <본지풍광>을 현대어로 풀어 썼을뿐만 아니라 그 책에 실리지 않고 녹음 상태로 남아 있던 법문을 상좌인 원택 스님(백련암 갈원)이 녹취 정리해 읽기 쉽도록 정리했다. 성철 스님이 해인총림 초대 방장으로 취임한 1967년 이후 1982년까지 결제일이나 해제일에 행했

####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나 2

성철 스님 장경각 2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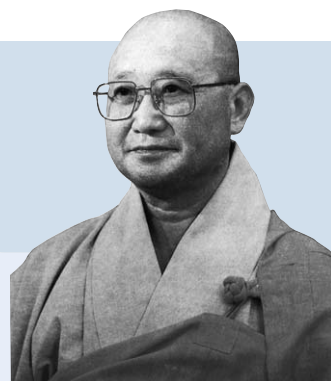


던 법문을 바로 앞에서 듣는 느낌이다.

책에는 다양한 56칙의 전통 공안과 스님의 독자적인 안목을 결집한 화두 해설을 통해 ‘본래 구원된 자기’, ‘때묻지 않은 자기’를 바로 보라는 사자후가 일관되게 흐른다. 그 날의 법문에서 전달할 핵심내용인 ‘수시(垂示: 자비심으로 드러내 보임), 스님이 제기한 선문의 화두인 ‘본칙(本則: 근본 공안), 본칙에 대한 조사들의 법문인 ‘염(拈), 본칙에 대한 옛 선사들의 계승인 ‘송(頌), 본칙과 염과 송에 대한 스님의 간단한 평인 ‘착어(著語)’ 등이 긴밀한 구조로 이어진다. 스님은 옛 공안을 제기하고 여기에 다시 겹겹의 화두를 내놓으면서 수좌들의 공부를 점검하고 있기에, ‘현대판 범어록’이라고 불릴만하다.

김성우 기자

### 부처를 쏘는 ‘총알’은 ‘오직 모를 뿐’



#### 부처를 쏘라

송산스님 말씀 | 현각스님 역음 | 양언서 옮김 | 김경사 펴냄 | 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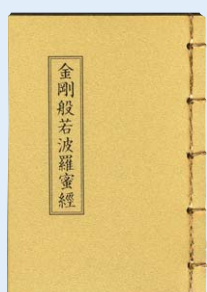


지만 여전히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일은 쉽지 않다.

송산 스님(1927~2004)은 우리에게 부처와 조사를 죽이는 칼을 남겨 주었다. ‘오직 모를 뿐’과 ‘오직 할 뿐’ 쌍칼이다. 이미 깨우쳐 있는 존재, 이미 그대로 완벽한 부처인 자신을 모르고 온갖 것에 집착하여 중생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찌러지게 깨달이라는 가르침이다. 밥 먹을 땀 밥 먹는 일에, 소변 볼 땀 소변보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화두의 삶이기 때문이다.

송산 스님의 친절한 가르침의 육성이 미국인 제자 현각 스님에 의해 <부처를 쏘라>로 찾아 왔다. 현각 스님이 허버드에서 종교학을 공부하다가 송산 스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스승의 가르침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며 기록한 생생한 사자후들이 담겼다. 1982년 송산 스님이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자비심으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냈던 편지를 전문도 소개해 세간의 화제다. 임연태 기자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품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으로 장엄하였으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쪽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 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상불소영가친대장량장식사용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사상화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전주 크기: 8mm x 10mm x 12mm 55,000원 10mm x 10mm x 12mm 65,000원 12mm x 10mm x 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명이 온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승명화



썩음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가능한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음을 경감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물 온열복대는 썩음(최고 60°C)보다 높은 고열(80°C 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백색(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백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된다. 치구온배, 해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가능한 최고인 금강약물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정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로기 (02)723-0099 입점처 : 농협 70-12-056037 3층 / 일일공회도 5층 한다.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음향연구가 김문화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괄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금강약물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물 온열복대 복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복판3대 특산품인 금강약물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료기 금강약물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물 유각(활기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백색(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갖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작용하고 편안하게 알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 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 차가움 • 오심, 구역,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허벅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할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